

농관원·광주시 쇠고기 원산지 표시 강화후 첫 합동 점검

“명세서엔 수입산, 메뉴엔 없네요”
“원산지 표시 방법 아직도 몰라요”

“원산지표시를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이게 됩니까.” “제대로된 교육도 못 받아 우리도 헛갈립니다.”

11일 오후 광주시내 쇠고기 판매 음식점에서 벌어진 원산지표시 단속반과 음식점업주·종업원간에 벌어진 실랑이 모습이다. 이날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광주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농관원)이 첫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 날이다.

“깨알 같은 글씨 키우세요”

이날 오후 광주시 서구 유력동 Y식당(면적 230㎡, 단속반은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나왔다”고 말하면서 벽면에 걸린 세로 40cm, 가로 50cm의 게시판을 확인했다. 게시

판에는 ‘생고기 국내산 한우’ ‘육회 비빔밥 국내산 한우’ ‘육개장 국내산 한우’ 등의 표시가 깨알 같은 글씨로 써져 있었다.

농관원 원산지기동단속팀 조기홍(53) 반장이 식당 주인에게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를 더 크게 하세요”라고 말한 뒤 쇠고기 거래명세서를 요구했다. 주인은 양지 2kg·생고기 4kg·갈비 6kg 등의 부위별 내용이 적힌 A4 용지를 꺼내 보여줬다. 그러나 부위별 원산지표시를 비롯, 거래처명이나 연락처 등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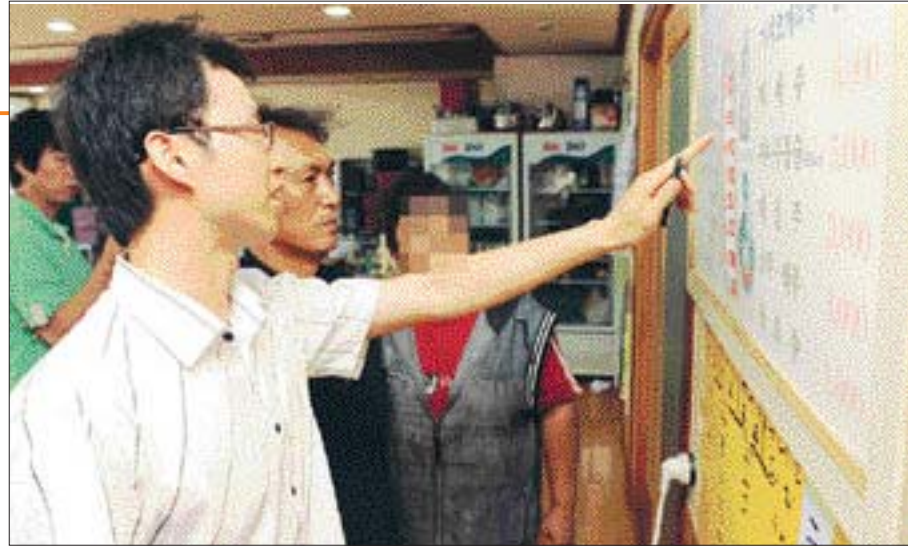
단속반은 거래명세서에도 부위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생고기와 익힌 쇠고기 등 두 종류의 시료(100g씩)를 채취했다. 100㎡ 이상 음식점의 경우 메뉴

판과 게시판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며 거래명세서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식당 주인은 “쇠고기 중간유통업체 사장이 말하는대로 믿고 사왔다. 지금까지 거래명세서라는 것을 별도로 받지 않고 그냥 메모지에 적어 준 것만을 보관해 왔다”며 “메뉴판에 원산지표시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도매상서 속일땐 속수무책

같은 날 오후 3시 서구 농성동 E식당. 625㎡ 크기의 식당 안에는 메뉴가 적힌 게시판이 없었다. 일부 메뉴판에도 원산지 표시가 돼있지 않았다. 농관원 단속반 이병영(30)



광주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첫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 11일 단속반이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메뉴판의 원산지 표기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씨가 원산지표시가 된 메뉴판을 넘겨받은 뒤 “정육거래 명세서”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확인 결과 불일치했다. 거래명세서는 ‘소갈비’ 뉴질랜드산으로 표시돼 있는 반면 메뉴판에는 호주산으로 기재돼 있었다. 종업원들은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단속반이 따져 묻자 종업원들은 “주인이 없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둘러댔다.

이 식당 종업원은 “한우인지 아닌지 잘 구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유통업체에서 가져온 부위별 쇠고기로 음식을 만든다”며 “교육도 안 받았는데, 표시방법을 어떻게 알겠냐”고 속내를 드러냈다. 광주시 나은주(41) 농산유통과 직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파악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음식점 9곳중 2곳 위반 적발

이날 단속은 광주시 직원 1명과 농관원 직원 2명 등 3명씩 세 팀으로 나눠 이뤄졌다. 이들은 4시간 동안 단속 대상 음식점 9곳을 돌며 원산지 표시 여부와 표시된 원산지 종류 사실 등을 확인했다. 단속 결과 9곳 중 2곳(허위표시 2건)이 적발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554) 김중두



Advertisement for KCC (주)금복시스템, featuring text about real estate and contact information.

광주도심 날치기 활개

오토바이·차량 이용...최근 10여건 발생

최근 광주시내에서 밤길 여성들을 상대로 한 날치기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11일 광주동부경찰청에 따르면 10일 새벽 0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조선대 후문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김모(여·23)씨의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김씨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6일에도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여성이 오토바이를 탄 남성에 게 날치기를 당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서구 풍암동과 남구 주월동에서도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광주에서만 10여건의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의 몸타수를 만들어 탐문수사를 하는 한편, 날치기 예방 및 검거를 위해 형사들을 대거 투입해 불시 검문 검색 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 경찰 관계자는 “2건의 차량 날치기 사건의 경우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건들은 날치기 범들이 사용한 오토바이의 종류가 다양해 동종 전과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4개 여성단체 회원 100여명은 지난 10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달빛시위’ 행사를 열고, 여성들의 밤길 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주말·휴일 무더위 한풀 꺾여

광주·전남지역을 뜨겁게 달궀던 불볕더위는 주말과 휴일인 12, 13일 한풀 꺾이겠지만, 다음주까지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0도 초반을 오르내리는 후텁지근한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2일 광주·전남지역의 전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12일 광주·전남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로 35도를 오르내렸던 불볕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 해상에서 0.5~1.5m로 예상했다.

휴일인 13일에도 구름이 끼고 흐린 날씨는 계속 이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3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날씨는 실제 온도보다 체감 온도가 더 높아 불쾌지수가 높아지게 마련”이라며 “정신·신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장애인 휠체어 기금 기부하려다...

캔 따개 모으면 60대 할머니 절도범 몰려

장애인 휠체어 기금 마련을 위해 음료수 캔 따개를 모으면 60대 할머니가 절도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장애인 전통문화예 기부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A씨(여·68)씨는 10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함에 음료수 캔 따개 50개를 떼어내고 있었다는 것.

A씨가 캔 따개를 분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A씨를 절도범으로 오해하고 “당신 도둑 아니냐”고 말했다.

오해를 받은데 격분한 A씨는 관리소장 B씨와 약간의 몸싸움을 벌였고, 두 사람은 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에 경찰에 연행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복지관

에서 음료수 캔 따개를 모아 휠체어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참여해왔다”며 “장애인을 돕는다는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 절도범으로 몰려 화가 났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관리소장 B씨는 “수거된 아파트 재활용품은 외부 업체에서 수거하고, 그 수익은 주민들을 위해 사용된다”며 “재활용 수거량이 감소하고 있던 상황에서 A씨의 모습을 목격하고 지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분씨와 최씨가 서로 화해하고 합의함에 따라 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현대미포조선 사내 도급은 직접고용”

대법 “묵시적 근로계약...고용 승계해야”

현대미포조선이 생산현장의 일부 공정을 떼어내 용인기업에 사내 도급한 행위가 실제로는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용인기업 근로자들이 낸 민사소송이고, 앞서 2003년 울산 지방노동사무소가 현대미포조선과 용인기업의 도급관계를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해 경찰에 고발했을 때는 무혐의 처리됐었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소

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안소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기업은 1978년 설립된 뒤 25년간 미포조선의 사내 기계수리 전문 도급업체였으나 미포조선이 선박 건조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도급물량이 적어지자 2003년 1월말 폐업했다. 이후 근로자 30명은 “미포조선이 직접 노무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연협뉴스



재난 구조훈련.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1일 광주시 광산구 송산원원에서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을 펼쳤다. 시 소방본부 소속 구조대원들이 갑작스런 폭우로 물에 잠긴 승용차에서 운전자를 구조하는 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사현장 새시 등 자재 4천100만원 어치 훔쳐

해남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해남군 일대 공사현장에서 4천100여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및 철근, 맨홀뚜껑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온 피의자 정모(27)씨 등 2명과 훔친 물건을 알고 자재에 매입한 고물상 업주 윤모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알루미늄이 고철 가격의 5배가 넘는 고가에 거래되며 새벽 시간대를 이용, 공사현장을 돌며 새시를 갈쳐 각종 자재를 훔친 뒤 고물상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현장 CCTV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윤씨 고물상에 대해 피해품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광주경찰청 내달까지 하절기 특별방범활동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병민)은 다음달 31일까지 하절기 특별방범활동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중 ▲생계형 범죄 ▲피서철 빈집털이 ▲행락지 등에서 성폭력 등 여성범죄 등에 대해 중점 방범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또 피서지에서 유사치 신속한 구조활동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차 심부름 폭로 여교사는 무죄”

“차(茶) 심부름을 강요당했다”는 여교사의 폭로 뒤 교장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 “여교사의 폭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

○대법원3부는 11일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전 기간제 여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A씨는 2003년 3월말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여교사라는 이유로 차 접대를 강요하는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뒤, 이 사건의 여파로 서로 교장이 자살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

○한편 1·2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위료를 인정했다. /연협뉴스

“조선대 정이사 이달까지 선임해야”

전호중 총장 등 성명 “사학분쟁위는 결단 내려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 이사 선임 일정을 미루면서 지난 1일 이후 ‘이사 부존재’ 상황에 처한 조선대가 14일 오전 11시 고대 법과대학 모의 법정에서 정상화 추진과정 보고대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조선대 전호중 총장을 비롯해 각 단과대학 학장과 대학원장, 처장급 보직교수 등 교무위원 일동은 사학분쟁조정위가 7월 말까지 정이사를 선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들은 보고대회에 앞서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조선대는 구성원과 지역 사회의 의견을 모아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으나 사학분쟁조정위는 1개월 이내에 심의토록 돼있는 운영규정에 불구하고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의결을 미루어 왔다”며 “정상화 방안 심의 지연 이유가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절대 동은 사학분쟁조정위가 7월 말까지 정이사를 선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우리의 정상화 노력과 달리 전

경영진 측은 4차례에 걸친 사학분쟁조정위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았고, 일부 사학분쟁조정위에 대한 괴롭힘을 내는 등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켜왔다”며 “사학분쟁조정위는 부정과 비리를 자행해 교육계에서 퇴출된 비리집단이 다시는 학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사학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정기회의를 가졌으나 조선대 정이사 선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오는 17일 차기 회의가 열릴 예정

이다. /정성필기자 camus@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일당 4명 검거

강화도 모녀 납치·살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강화경찰은 사건 발생 24일만인 11일 용의자 안모(26)씨 등 4명을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지난달 17일 오전 윤모(여·47)씨 집에 침입, 혼자 집

안씨 등은 사건 당일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윤씨의 집 근처에 있다가 딸 김선영(16)양을 등고시켜 준 뒤 귀가한 윤씨를 납치, 집 근처로 끌고와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협뉴스

Weather forecast for July 12th (Monday) and 13th (Tuesday). Includes temperature ranges, precipitation, and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patterns.